

조선시대 의과시험 교재로서의 『醫學入門』에 대한 고찰

국수호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n Uihakyimmun (醫學入門) as a Medical Examination Textbook of the Joseon Dynasty

SooHo Kug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Uihakyimmun (醫學入門) was written around 1580 by Li Ting (李挺) during the Ming Dynasty of China. Later, during the mid-Joseon period, Uihakyimmun (醫學入門) was introduced to Joseon and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Joseon medicine. The importance of this Uihakyimmun (醫學入門) was especially evident as it was designated as a textbook for medical examin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Uihakyimmun (醫學入門) being introduced into Joseon based on historical records. It also considered the reason why Medical Education was selected as the textbook for the medical examination instead of Donguibogam (東醫寶鑑). As a result, it was widely read by court doctors before being selected as a test textbook, and gradually became a formal textbook after being used in informal tests.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rough historical records that the reason why Uihakyimmun (醫學入門) was chosen instead of Donguibogam (東醫寶鑑) was because Uihakyimmun (醫學入門) fit better with Confucian values.

Key words : Medical history, Uihakyimmun, Joseon Dynasty, Gwgeo, Medical Examination

I. 서론

『醫學入門』은 중국 명나라 시기의 醫家인 李挺이 1580년 경에 저술하였다. 이후 조선 중기에 『醫學入門』은 조선으로 유입되었으며 『醫學正傳』 및 『萬病回春』과 같은 의서와 함께 조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¹⁾ 그리고 『醫學入門』은 『醫林撮要續集』, 『鍼灸要訣』, 『診解胎產集要』 등의 의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²⁾ 또한 조선 중기 한 의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東醫寶鑑』에도 2714개의 조문이 사용³⁾되는 등 『東醫寶鑑』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醫學入門』의 중요성은 특히

조선후기 純祖年間に 醫科取才의 考講書로서 지정됨으로서 명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근현대기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한국 한의학에서 임상서적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醫學入門』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의 의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한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도 포함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로는 『醫學入門』 자체를 다루는 연구와 『醫學入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醫學入門』 자체에 관한 연구로서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⁴⁾와 조선에서 출간한 『醫學入門』의 판본에 대한 연구⁵⁾가 있으며 아울러 한 의학의 입장에서 『醫學入門』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조망한 연구⁶⁾도 있다.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醫學入門』의 내용

접수 ▶ 2021년 04월 20일 수정 ▶ 2021년 04월 23일 채택 ▶ 2021년 05월 07일
교신저자 ▶ 국수호,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 E-mail : koogsuho@khu.ac.kr

-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264.
- 2)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사학회지. 2000;13(1):112-127.
- 3)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72, 78.
- 4) 차웅석. 「중국의 의학입문이 한국의 동의보감에 미친 영향」. 한국사학회지. 2000;13(1):111-127.
- 5) 박훈평. 「조선 간행 『의학입문』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7;30(2):33-44.

을 토대로 明代의 의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체관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⁷⁾와 『東醫寶鑑』, 『醫學入門』, 『景岳全書』의 텍스트를 디지털 기술로 계량 분석하여 의서 사이의 의학 사상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이 계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⁸⁾도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醫學入門』중에서 肝葉⁹⁾, 明堂仰伏圖¹⁰⁾, 三焦의 생리¹¹⁾, 腰痛¹²⁾, 命門¹³⁾, 傷寒¹⁴⁾ 등등의 내용을 다룬 여러 연구가 조학준에 의하여 진행 되었으며 『醫學入門』의 참고의서와 편제를 분석한 연구¹⁵⁾도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醫學入門』이 다른 의서들과 가지는 관계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醫科取才의 考講書 중의 하나로서 『醫學入門』을 조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¹⁶⁾ 및 기타 사료들을 토대로 『醫學入門』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醫科取才의 考講書로 선정되는 과정을 연구 하고자 하며 특히 『東醫寶鑑』대신 醫科取才의 考講書로 선정된 이유에 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醫學入門』이 한국 한의학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잘 조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본론

1. 『醫學入門』 수용의 과정 탐색

『醫學入門』의 경우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기간이 모든 의서들 가운데 제일 늦지만 시험과목으로 정식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東醫寶鑑』의 인용문 중에서 『醫學入門』은 2714개의 조문이 인용되었으며 이는 『證類本草』가 3370개 조문이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의학 서적이다.¹⁷⁾ 이것을 보면 『醫學入門』의 수용이 이루어진 시기는 李梴이 『醫學入門』을 저술한 1580년경부터 1610년 사이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醫學入門』의 수용이 『醫學入門』이 저술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한 『醫學入門』수용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발견되는 『醫學入門』의 흔적은 『承政院日記』에서 찾을 수 있다. 『承政院日記』의 경우 仁祖年間の 기사에서부터 『醫學入門』에 대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 仁祖26年(1648) 10월 14일, 文臣인 李時萬(1601-1672)은 왕세자의 書筵에서 사용할 서적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관목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관청에서 급히 찍어 올릴 것을 건의하는데 그 가운데에 『醫學入門』이 있다.¹⁸⁾ 하지만 같은 해 11월 19일의 기사를 보면 書筵에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周易』, 『詩經』, 『書經』만 속히 인쇄해서 올리고 나머지 언급된 서적은 찍어서 올리지 말도록 하는 건의에 대해 왕이 승낙을 한다.¹⁹⁾ 이것을 보면 비록 실제 인쇄하여 올리지는 않았지만 『醫學入門』이 왕실에 필요한 서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는 『醫學入門』의 책관은 박훈평의 연구에 따르면 1636까지로

- 6) 홍세용, 이만균,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5-137.
- 7) 김대기. 「明 後期 醫學者の 身體觀-이천의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006;21:149-178.
- 8) 오준호. 「의학 사상의 유사성은 계량 분석 될 수 있는가 - 『동의보감』과 『의학입문』, 『경악전서』를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2):71-82.
- 9) 조학준. 「『醫學入門』 肝葉 관련 문장의 새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1;34(1):27-36.
- 10) 조학준. 「『醫學入門』 明堂仰伏圖의 기원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1):75-93.
- 11) 조학준. 「『醫學入門』 三焦 생리 특성의 유래」, 한국사학회지. 2015;28(2):23-36.
- 12) 조학준. 「『醫學入門』腰痛」의 문헌 근거 - 『東醫寶鑑』腰痛과 비교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27(2):119-135.
- 13) 조학준. 「『醫學入門』 命門 形狀의 유래와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79-97.
- 14) 조학준. 「『傷寒辨類』의 編制와 內容에 대한 연구 -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比較」, 한국사학회. 2012;25(2):49-62.
- 15)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참고의서분석과 편제연구」, 한국사학회지. 1999;12(2):47-88.
- 16) 『朝鮮王朝實錄』의 기록 확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朝鮮王朝實錄』 데이터베이스자료(URL: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를, 그리고 『承政院日記』의 기록 확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承政院日記』 데이터베이스자료(URL:http://sjw.history.go.kr/help/inspection.do)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 17)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72, 78.
- 18) “李時萬, 以待講院言啓曰, 王世子畢講孟子之後, 則詩·書, 當爲繼講, 而院中雖有若干件, 率皆不帙, 故詩·書爲先精印上送. 其他緊急書冊, 亦爲印送事入啓, 下諭于諸道監司處矣. 卽見全南·洪清兩道監司狀啓, 則板本刱缺, 不堪印出云. 書筵進講之用, 不可如是緩忽, 其刱缺之板, 及時修改, 斯速印送, 且全南所在小學診解·孔子通記·小學·十九史略·三韻通考·東醫寶鑑·醫學入門等書, 各數三件, 亦爲從容印送, 洪清道所在四書診解板本, 竝令修補印送事, 兩道監司處, 更爲行會, 何如? 傳曰, 知道. 慶尙監司狀啓上來後, 參酌行會, 可也.”(『承政院日記』, 仁祖26年(1648) 10月 14日.)
- 19) “趙啓遠, 以待講院言啓曰, 以本院缺王世子, 畢講孟子之後, 則詩·書當爲繼講, 而院缺若干件, 率皆不帙, 故詩·書爲先精印上送, 其他賢缺冊, 亦爲印送事, 入啓, 下諭于諸道監司處矣. 今見全南·洪清兩道監司狀啓, 則板本刱缺, 不堪印出云, 書筵進講之用, 不可爲之緩忽, 其刱缺之板, 及時修改, 斯速印送, 且全南道所在小學診解·孔子通記·庸·學·史略·三韻通考·東醫寶鑑·醫學入門等書, 各數缺件亦爲從容印送, 洪清道所在四書診解板本, 竝令修補印送事, 兩道監司處, 更爲行會何如, 草記, 傳曰, 知道. 慶尙監司狀啓上來後, 參酌行會何如事, 傳教矣. 問于政院, 則慶尙監司祇受狀啓, 既已上來, 缺板本刱缺處, 速爲修補, 及時上送, 而其中不緊缺十九史略·三韻通考·東醫寶鑑·醫學入門等書則勿爲印送. 周易·詩·書則繼講當次, 最爲緊急, 全南·慶尙·洪清三道監司處, 斯速印送, 五六字缺行會之意, 敢啓. 傳曰, 知道.”(『承政院日記』, 仁祖26年(1648) 11月 19日.)

소급될 수 있다.²⁰⁾

英祖시기에는 의관인 許坵(1649-1732)에 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英祖 임금의 증상이 暑病인지 疝氣인지에 대하여 醫官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자 英祖는 아무리 기강이 해이해졌다 하지만 醫官들이 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겠다고 나무란다. 이에 都提調 兪拓基(1691-1767)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며 許坵의 예를 거론하고 있다.

.....拓基가 말하기를 “신이 편전 밖에서 또한 여러 의관에게 말하였는데 許坵의 의술이 비록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서를 외우는 것을 보자면 나이가 많음에도 오히려 그치지 않았으니 성의가 가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관들은 이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上께서 말씀하시기를 “許坵이 入侍하면 『醫學入門』을 반드시 외었으며 그가 首醫였을 때에는 그 아래의 여러 의관들이 반드시 그의 말을 따랐다. 지금은 (의관들이) 術業은 정밀하지 않으면서 오직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있으니 내가 복약을 중지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부류는 진실로 책망하는 것은 부족하고 서로 모난 것이 없어진 연후야야 또한 임금을 섬길 수 있다.”.....²¹⁾

이 기사를 보면 醫官인 許坵이 평소 『醫學入門』을 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許坵이 생존하였던 시기인 1649-1732년에는 『醫學入門』이 정식으로 교재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許坵과 같은 일부 의관 및 그들의 영향 하에 있던 醫官들도 그러한 행동을 본받아서

비슷한 학습습관을 길렀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위의 기사에서 醫官들을 비판하는 英祖 그 자신도 다른 기사에서 『醫學入門』을 좋다고 평가하며 평소에 그것을 외우고 있다고 밝히기도 한다.²²⁾ 이것은 왕실에 『醫學入門』이 비치되어 있어서 임금도 『醫學入門』을 읽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의 『醫學入門』은 그 부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英祖34年(1758) 12월 17일 기사를 보면 의관 李泰遠이 『醫學入門』의 책 수가 너무 적어서 나라 안에서 거의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자 英祖가 『醫學入門』과 『醫學正傳』, 『東醫寶鑑』을 찍을 것을 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실제 『醫學入門』을 좋게 평가하는 풍조가 있고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자체는 많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祖 즉위년(1776) 6월 7일의 기사를 참고해 보면 당시의 궁중에는 『醫學入門』이 최소 4질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를 통해서 비록 외부에서는 『醫學入門』을 교육하기는 어려웠지만 궁궐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醫學入門』의 부분이 갖추어져 있어서 내부적인 교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正祖 卽位年(1776) 6월 12일 기사를 보면 시험에 不通한 네 명의 의관 方孝民·李世玉·金致儉·崔尙圭에 대해 正祖가 의서를 잘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醫科에 합격했느냐고 직접 이들 醫官들을 불러서 힐문하자 이들 醫官은 자신들이 醫科에 급제할 때 읽은 책은 『銅人經』과 『醫學入門』 등의 서적이기 때문에 기타의 의서를 읽는 것에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여 正祖를 화나게 하는 장면이 있다²⁴⁾. 이것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正祖시기 醫科시험에서 『醫學入門』이 비록 정식으로 공인된 교재는 아니지만 정식 교재인 『銅人經』만큼이나

20) 박훈평, 「조선 간행 『의학입문』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학사학회지, 2017;30(2):37.

21) “.....拓基曰, 臣於閤外, 亦言諸醫, 而許坵之醫術, 臣雖不知其淺深, 而見其誦醫書, 則老猶不掇, 誠意可尙. 而今之醫官, 無如此者矣. 上曰, 許坵入侍, 則醫學入門必誦之, 爲其首醫時, 其下諸醫, 必從其言矣. 今則術業不精, 而惟有猜克之心, 予之欲停業者, 亦有意也. 彼類固不足責, 而無圭角然後, 亦可以事君矣.....”(『承政院日記』, 英祖22年(1746) 6월 18日.)

22) “.....上曰, 新醫書, 比舊件, 何如? 壽暉曰, 近來自北京買來者, 不過若干傳會者. 醫家, 以黃帝素問爲重, 而東原[東垣]·丹溪·長沙·劉河澗, 醫學入門爲主矣, 近來出來者, 皆自此中染出者, 都不如舊矣. 上曰, 入門好矣, 予每誦之矣.....”(『承政院日記』, 英祖27年(1751) 3월 15日.)

23) “金文淳, 以兵曹言啓曰, 卽接昌德宮衛將牒報, 則今日輸去冊子中, 醫學入門二十六卷無題目, 醫學入門十九卷, 增補萬病回春四十六卷, 明心論一卷, 周易集解三卷, 明史摠目二十五卷, 歷代史要十五卷, 應天歌二卷, 康熙壬寅合辭曆二十五卷, 東醫寶鑑八十卷, 欽定協紀辨方書[欽定協紀辨方書]二十二卷, 瓊玉斧四卷, 史漢一統七卷, 新法曆引一卷, 增補觀象玩占十四卷, 七正算九卷, 戎事類占九卷, 二倫圖三卷, 三綱行實一卷, 醫學入門十九卷式二秩, 闡義昭鑑十四卷, 醫學正傳十六卷, 錦囊經序·歷代通鑑纂要合四十二卷, 大明律十一卷, 王文類抄一卷, 歷代象緯三卷, 史略二件十四卷, 諸家曆象四卷, 靑鳥經全一卷, 人子須知九卷, 羅經項門十卷, 地理新法全一卷, 御製大明律三卷, 東醫寶鑑十九卷, 老乞大診解二卷, 勸解錄四卷, 六壬經一卷, 天東象三卷, 國朝喪禮三卷, 天源發微七卷, 退陶先生集二卷, 觀象翫占[觀象玩占]十五卷, 大六壬課經三卷, 宋文正文二卷, 御製律曆一卷, 黃赤道一卷, 陰陽妙一卷, 課經集二卷, 隨錄三卷, 新刊太史一卷, 人子須知二卷, 御製曆象一卷, 儀禮經典通解二卷, 儀禮三十六卷, 合五百九十六卷輸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承政院日記』, 正祖卽位年(1776) 6월 7日.)

24) “.....上曰, 醫官之不通者多乎? 浩修曰, 四人矣. 上曰, 竝入侍. 賤臣承命而出, 與醫官方孝民·李世玉·金致儉·崔尙圭進伏, 命讀所讀之書, 皆不通. 上曰, 汝等不能通醫書, 如是而何以爲醫科乎? 孝民等曰, 臣等所登醫科之書, 卽銅人經, 醫學入門等書, 故其他醫書則不得知之矣. 上曰, 然則都提調·提調持銅人經及醫學入門入侍. 都提調如出去, 只提調入侍. 賤臣承命而出, 與藥房提調徐命善進伏, 以都提調已爲出去之意仰奏. 上曰, 醫官輩不能通醫書矣. 命善曰, 臣等俄者受講, 而誠極寒心, 而至於崔尙圭, 則以其不通所對之言, 極爲不恭矣. 上問尙圭曰, 汝之術業如是, 而何以入醫院? 尙圭曰, 臣與申晦·鄭厚謙相親, 故得入醫院矣. 上曰, 所對之言, 極爲放恣矣. 命書傳教曰, 醫官崔尙圭, 不但本院應講時, 肆發爭抗之言, 事極無厭, 況前席下詢, 其所奏對, 尤極放恣. 朝廷有紀綱, 此等賤類, 不畏國法, 若此之甚乎? 爲先汰去, 拿問定罪, 命醫官先退.....”(『承政院日記』, 正祖卽位年(1776) 6월 12日.)

시험에서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祖5年(1785)에 만들어진 『大典通編』의 「諸科條」에는 아직 『醫學入門』이 정식 과목으로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기사에서 네 명의 의관들은 자신들이 의과에 급제할 때 읽은 책으로 『銅人經』과 『醫學入門』이 언급한 것이다. 이는 醫官들의 考講을 넘어서 醫生들이 보는 醫科시험에도 비공식적으로 『醫學入門』이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銅人經』은 조선시대 의과시험에서 내내 등장하며 항상 背講으로 시험을 볼 만큼 중요한 의학교재였다. 그런데 그런 『銅人經』바로 다음으로 『醫學入門』을 언급하므로 그 당시 『醫學入門』이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醫學入門』이 정식으로 의과시험의 교재로 채택되는 純祖31年(1831)에 『醫學入門』은 『銅人經』과 나란히 배강을 해야 하는 교재가 된다.²⁵⁾ 따라서 상기 기사에 작성된 시기에 이미 『醫學入門』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네 사람은 醫科에는 합격하였지만 다른 의서를 읽는데 不通하여 정조의 문책을 받고 있다. 이는 즉 이 네 사람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에서 다른 醫官들은 모두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낙제 점수를 면한 醫官들은 『銅人經』과 『醫學入門』 두 책을 기본으로 하고서 다른 의서도 공부하여 읽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講書방식은 글을 보지 않고 외우는 背誦과 책을 펼쳐서 보되 그 뜻을 상세히 풀이해야 하는 臨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文官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수단으로는 文科와 明經科가 있었다. 이 중 明經科는 文科와 다르게 오직 四書五經의 講書로만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明經科는 매우 합격하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의 선비들은 작문의 비중이 더 높은 文科를 주로 응시하였다. 이렇듯 講書방식의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본다면 醫科에 합격한 상기 기사의 의관들은 正祖의 질타를 받고는 있지만 결코 수준이 낮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銅人經』과 『醫學入門』 등의 서적은 당시 의과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의학지식은 담고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시 의과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요가 높은 책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醫學入門』을 시험교재로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惠局志』를 들 수 있다. 肅宗45年(1719)에 처음

저술되고 正祖2年(1778)에 중수된 惠民署의 관청지 『惠局志』에서는 祿官 즉 正職이나 遞兒職을 가지고 있는 醫官이 관원을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 계절마다 보는 시험인 考講에서 『醫學入門』을 매 초하루 30구절씩 考講한다고 하였다.²⁶⁾ 여기서 언급된 『醫學入門』은 醫官을 선발하는 醫科 시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미 醫官으로서 惠民署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醫官들 사이에서 시범적인 과목으로서 『醫學入門』을 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험과목의 운용 실적이 나중에 醫科시험의 과목으로 『醫學入門』이 선정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1. 『醫學入門』의 도입부터 背講 교재의 선정까지를 나타낸 연표

연도	사건
1580년경~(光海2年)1610	『醫學入門』의 朝鮮 유입.
仁祖26年(1648)	『醫學入門』 판목에 대한 언급.
英祖22年(1746)	『醫學入門』을 외웠던 醫官 許坵(1649-1732)에 대한 언급.
英祖34年(1758)	醫官 李泰遠의 건의로 英祖가 『醫學入門』, 『醫學正傳』, 『東醫寶鑑』을 印出하기로 결정함.
正祖 卽位年(1776)	궁중에 『醫學入門』이 4질 존재하였다는 언급.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醫官들이 『醫學入門』을 언급.
正祖2年(1778)	『惠局志』에서 『醫學入門』을 매 초하루 30구절 考講한다고 언급.
純祖31年(1831)	『醫學入門』을 背講 교재로 결정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惠局志』가 성립된 肅宗45年(1719)과 考講의 언급이 있는 正祖2年(1778)년 사이에 『醫學入門』을 학습하는 분위기가 궁궐 내부의 醫官들에게 조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醫學入門』이 비공식적인 시험교재로 사용된 것은 肅宗45年(1719)에서 正祖2年(1778)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축적이 純祖20年 金履喬(1764-1832)의 주도로 조선판 『醫學入門』의 중간본이 간행되고 純祖31年(1831)에 背講 교재로 정해졌으며 마침내 高宗2年(1865) 『大典會通』에 공식적인 교재로 명기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25) “.....臣意則自來甲午式醫科初試爲始, 『醫學入門』與『纂圖』, 同爲背講, 『銅人經』則以面講爲之, 定以九冊, 永爲施行, 其在勸課之方, 誠爲懋實之道, 請下詢大臣處之, 大臣皆以爲宜. 從之.”(『朝鮮王朝實錄』. 純祖31年(1831) 8月 30日.)

26)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2.

2. 『醫學入門』이 講書과목으로 정식 채택된 이유에 관한 고찰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종합의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醫學入門』은 시험과목으로 들어간 반면 朝鮮 中期에 한의학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東醫寶鑑』은 의과시험의 교재로 들어가지 않았나하는 점이다. 이 의문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학습의 편의성이고 두 번째는 두 책이 지닌 사상의 배경차이이다.

1)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사이에서 학습의 편의성 비교

우선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학습의 편의성 차이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醫學入門』은 원래 明나라에서도 太醫院의 정식 교재는 아니지만 보조교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책이다. 중국의 文科시험공부에서는 과거시험용 보조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明清시기의 출판물에서 과거시험용 서적의 수요는 항상 상위권이었던 것이다.²⁷⁾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진 『醫學入門』은 학습에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로 『醫學入門』의 주요 내용은 7언의 운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醫學入門』의 문장가운데에서 舌病과 脣病 부분의 正文에 해당하는 원문만 추려내어 운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舌病의 원문에서 각 구절의 끝 글자를 살펴보면 詳, 長, 脹, 瘡, 般, 乾, 腫, 難이다. 이 각 글자의 韻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각각 下平聲七陽, 下平聲七陽, 去聲三十三漾, 下平聲七陽, 上平聲十四寒, 上平聲十四寒, 上聲二腫, 上平聲十四寒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舌病과 脣病의 문장은 마치 칠언절구 두 개를 합친 모양과 같으며 각 구절의 韻字는 보기 쉽게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면 AABA, CCDC의 모양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韻의 배치를 소리 내어 읽을 때 리듬감을 낳았으므로 암송에 편의를 제공한다.

표 2. 『醫學入門』 舌病과 脣病의 正文에 쓰인 押韻

原文	韻字	韻字의 聲調	聲調에서의 하위분류	
舌病				
舌病內外因可詳。	詳	下平聲	七	陽
外因強短內腫長。	長	下平聲	七	陽
腎虛淡黑肺痰脹。	脹	去聲	三十三	漾
肝衄心脾裂作瘡。	瘡	下平聲	七	陽
脣屬脾家病幾般。	般	上平聲	十四	寒
風潤寒掀熱裂乾。	乾	上平聲	十四	寒
血虛無色氣瘡腫。	腫	上聲	二	腫
繭唇不食療應難。	難	上平聲	十四	寒
牙齒				
牙齒屬腎胃大腸。	腸	下平聲	七	陽
腎虛滋陰腸胃涼。	涼	下平聲	七	陽
開口便知風與熱。	熱	入聲	九	屑
客寒犯腦痛難當。	當	下平聲	七	陽
挾咳毒痰鑽掣血。	血	入聲	九	屑
齦有黑點被蟲傷。	傷	下平聲	七	陽
牙宣之因只有二。	二	去聲	四	寘
走馬疳疔小兒方。	方	下平聲	七	陽
外治必兼辛溫藥。	藥	入聲	十	藥
擦牙選須擦牙床。	床	下平聲	七	陽

나머지 부분인 牙齒의 부분을 살펴보면 각 구절의 끝 글자가 腸, 涼, 熱, 當, 血, 傷, 二, 方, 藥, 床이다. 이 각 글자의 韻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각각 下平聲七陽, 下平聲七陽, 入聲九屑, 下平聲七陽, 入聲九屑, 下平聲七陽, 去聲四寘, 下平聲七陽, 入聲十藥, 下平聲七陽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는 排律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排律은 8구로 구성된 律詩와 같은 仄仄과 對偶法 등을 갖추고서 10구 이상 구절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장편의 시 형식이다. 위의 구절은 10구이므로 배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牙齒에 속한 문장의 경우 각 구절의 韻字를 보기 쉽게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면 AABA, BACA, DA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울 수 있는 운문 형태의 글 아래에 그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마치 현대의 마인드맵처럼, 학습자가 7언의 글을 외우고 그 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면서 의학지식에 대한 기억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醫學入門』은 의학에 중요한 요점들을 암기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해야 하는 背講에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東醫寶鑑』은 『醫學入門』과 구조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암송하기에 불편하다. 이것은 『東醫寶鑑』

27) 김효민. 「명청소설과 八股文」. 한국중국소설학회. 2004;20:129.

의 출간 목적이 『醫學入門』과는 달리 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의 서문을 보면 『東醫寶鑑』의 출간목적은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서문에서는 宣祖임금이 궁벽한 고을에 치료할 사람이 없어 요절하는 자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향약이 많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것을 종류별로 병기해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고 許浚에게 당부한다.²⁸⁾ 그리고 許浚은 백성들의 질병은 재앙이며 백성을 위해 의술 및 약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재앙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다.²⁹⁾ 이것을 보면 『東醫寶鑑』의 출간 목적은 의학의 학습보다는 백성들의 보건을 위한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의 내용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찾아보기 편리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외우기 쉬운 형태로 편집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東醫寶鑑』은 실용적인 의학서이지만 시험을 보는데 사용하기에는 『醫學入門』보다 불리하다. 근대 한국 한의학을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인 晴崗 金永勳(1882-1974)은 『醫學入門』의 학습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한 그가 평생에 걸친 의학의 실천 끝에 “이론적 근거는 入門에서, 찾고 方藥의 근거는 寶鑑에서 찾으라”는 금언을 남기게 되는데³⁰⁾ 이 금언은 위에서 언급한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의 특성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의 사상적 차이 비교

『東醫寶鑑』과 『醫學入門』 두 책은 사상의 배경차이를 지니고 있다. 『東醫寶鑑』은 道敎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醫學入門』은 儒學 그 중에서도 특히 性理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東醫寶鑑』은 편찬과정에서부터 道敎와 관련이 깊은 인물인 鄭謙, 鄭礎 형제가 관여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龍虎秘訣』이라는 內丹 서적을 펴낸 것으로 유명한 鄭謙은 조선 丹學의 鼻祖로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며 의학에도 밝아서 儒醫로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東醫寶鑑』의 편찬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이므로 이들의 사상이 『東醫寶鑑』에 반영된 것은 당연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의 형식과 내용상으로도 道敎의 영향이 있다. 형식상으로 보면 『東醫寶鑑』의 제일 큰 구조는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머리에 있는 內景篇은 道敎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內景의 의미에 대해서 『東醫寶鑑』 「集例」를 보면 許浚 자신이 직접 『黃庭經』에 內景에 대한 글이 있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道家は 淸정과 수양을 근본으로 삼고, 醫門에서는 藥餌와 鍼灸로 치료를 한다. 道는 그 정미함을 얻었고, 醫는 그 거친 것을 얻었다”³¹⁾라고 하여 道의 수양이 醫學보다 우위라는 언급을 한다. 그리고 『東醫寶鑑』 「內景篇」 卷1의 첫 머리에 있는 精, 氣, 神이라던지 『東醫寶鑑』 「內景篇」 卷3에 蟲 부분의 三尸蟲과 같은 항목의 존재는 道敎의 인체관의 적극적인 반영 및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醫學入門』은 儒學的인 영향이 많이 드러나 있는 책이다. 우선 『醫學入門』의 저자 李梴은 朱丹溪의 계통을 잇는 의학자이다. 朱丹溪는 金元四大家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性理學을 집대성 한 朱熹의 四傳 제자인 許謙에게서 理學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李梴 자신도 의학에 입문하기 전에 儒學을 오래 연구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그의 의학은 儒學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李梴은 『醫學入門』에 儒學的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어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보면 李梴은 의학에서 말하는 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儒學에서 말하는 敬의 의미와 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²⁾ 敬이라는 용어는 性理學에서 매우 중요한 어휘이다. 敬은 흔히 ‘居敬’이나 ‘持敬’이라고 일컬으며 마음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식을 말한다. 이것은 北宋 시기에 程顥, 程頤 형제에 의해 마음을 공부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朱熹가 性理學을 정립한 후 敬은 모든 儒學者들에게 핵심 명제가 되었다.³³⁾ 그리고 李梴의 의학 사상의 기초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內集에 실린 「原道統說」, 「陰騭」, 「保養」, 「運氣」 등의 논설이 있다. 이 중 특히 「原道統說」은 唐宋八大家 중의 한 명인 韓愈가 孔子와 孟子를 儒學의 정통으로 추송하기 위하여 지은 「原道」라는 글에 빗대어서 의학의 계통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歷代醫學

28) “...窮村僻巷無醫藥, 而夭折者多。我國鄉約多產, 而人不能知爾。宜分類並書鄉名, 使民易知。”(『東醫寶鑑』「序」.)

29) “臣竊念, 太和一散, 六氣不調, 癘殘札瘥, 迭爲民災, 則爲之醫藥, 以濟其夭死, 是實帝王仁政之先務。”(『東醫寶鑑』「序」.)

30) 홍세영, 이만균,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6.

31)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景象之圖, 道家以淸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東醫寶鑑』「集例」.)

32)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117

33) 김기현. 「성리학의 敬공부가 갖는 특수성에 관하여-현대적 연구의 서설로서-」. 도덕윤리과교육. 2012;0(37):230.

姓氏)는 性理學의 道統論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李梴이 사용하는 목차의 제목과 의학 용어의 설명법에서부터 儒學의인 색채가 짙게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어의 사용을 넘어서서 李梴은 의학의 공부 방식에도 儒學의인 공부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따르도록 의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권하고 있다. 다음은 『醫學入門』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방식과 윤리를 논하는 「習醫規格」의 초반부이다.

.....내가 말하였다. 醫學은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니 본성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성격이 고요하고 항상되며 陰功의 뜻을 진실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면 경솔하게 의술을 익힐 수 없다. 뜻이 이미 서있더라도 잘 헤아려 공부함이 옳다. 매일 아침 『先天圖』를 마주해 靜坐하고 『孝經』, 『論語』, 『小學』을 완미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크게 재질이 있는 자는 다음으로 『四書』 전부와 옛 『易』의 白文 및 『書經』의 「洪範」, 「無逸」, 「堯典」까지 미치도록 한다. 대개 醫學은 儒學에서 나왔으니 讀書하여 이치에 밝지 않으면 중국에는 저속하고 우매하게 되어 變化하는 것에 대해 소통하지 못한다. 매일 낮에 『入門』의 큰 글자로 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을 좇되 반드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음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속독을 한 후 생각에 잠겨 목상을 하여 마침내 그 사이의 의미를 다한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고금의 명가들이 쓴 방식을 열람하여 건문을 넓히도록 하고 혹시 덕이 있는 고명한 선비가 있다면 자세하게 청하여 질문한다. 陶節庵이 말하기를, 단지 속된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 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였다. 대개 方藥을 하되 『本草』를 도외시하고 이치를 추구하되 『素問』, 『難經』 및 張子和, 劉河間, 李東垣, 朱丹溪를 도외시한다면 비록 小方의 첩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大家에 들지 못하니 미혹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³⁴⁾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儒學의인 방식과 더불어 儒學 경전을 같이 습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儒學을 중시하였던 朝鮮時代의 관점에서 보면 의학과 儒學을 동시에 습득하도록 권장한 이러한 학습법은 당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朝鮮王朝는 儒學의 분야 가운데 性理學을 원나라에서 도입한 신진사대부들을 주축으로 세워졌으며 朝鮮時代 내내 性理學을 숭상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道敎의인 입장을 반영한 『東醫寶鑑』을 朝鮮王朝의 법전에 정식 교과서로 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東醫寶鑑』의 학습은 醫官들에게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학습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한 가지 추측 가능한 단서가 있다.

藥院의 直所에서 의서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사람은 천지의 변화하는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한 달 만에 膏液이 엉기고, 두 달 만에 혈액이 생성되고, 석 달 만에 胚囊이 이루어지고, 녉 달 만에 胎盤이 이루어지고, 다섯 달 만에 힘줄이 이루어지고, 여섯 달 만에 뼈가 이루어지고, 일곱 달 만에 형체가 이루어지고, 여덟 달 만에 움직이고, 아홉 달 만에 뛰고, 열 달 만에 출생한다. 形骸가 이루어지고 나면 五臟이 안에서 나누어진다. 肝은 눈을, 腎은 귀를, 脾은 혀를, 肺는 코를, 膽은 입을 주관한다. 하늘에는 四時, 五行, 九曜, 360일이 있고, 사람에게는 四肢, 五臟, 九竅, 360마디가 있다. 하늘에는 風雨와 寒暑가 있고 사람에게는 取與와 喜怒가 있다. 그리고 膽은 구름, 肺는 기체, 脾는 바람, 腎은 비, 肝은 우레가 된다. 사람은 천지와 서로 같은데, 마음이 주인이 된다.” 하였다.³⁵⁾

위의 내용은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李裕元은 純祖에서 高宗까지의 시대를 살면서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인물로서 內醫院 都提調도 지낸 적이 있다. 그래서 그가 만년에 벼슬에서

34) “.....予曰：醫司人命，非質實而無偽，性靜而有恆，真知陰功之趣者，未可輕易以習醫。志既立矣，卻可商量用工。每早對『先天圖』靜坐，玩讀『孝經』，『論語』，『小學』；大有資力者，次及全部『四書』，古『易』白文及『書經』「洪範」，「無逸」，「堯典」。蓋醫出於儒，非讀書明理，終是庸俗昏昧，不能疏通變化。每午將『入門』大字從頭至尾，逐段誦讀，必一字不遺；若出諸口，熟讀後，潛思默想，究竟其間意義，稍有疑難，檢閱古今名家方書，以廣聞見；或就有德高明之士，委曲請問。陶節庵云：但不與俗人言耳。蓋方藥而外於『本草』，理趣而外於『素』，『難』及張，劉，李，朱。縱有小方捷法，終不是大家數，慎不可為其誣惑.....”(『醫學入門』「習醫規格」.)

35) “藥院直所，見醫書曰：人受天地變化而生，一月而膏，二月而脈，三月而胚，四月而胎，五月而筋，六月而骨，七月而成形，八月而動，九月而躁，十月而生。形骸已成，五藏內分。肝主目，腎主耳，脾主舌，肺主鼻，膽主口。天有四時，五行，九解，三百六十日，人有四支，五藏，九竅，三百六十節。天有風雨寒暑，人有取與喜怒，膽為雲，肺為氣，脾為風，腎為雨，肝為雷，人與天地相類，而心為之主。”(이유원. 『국역 임하필기 7』.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99:253.)

물러나 저술한 『林下筆記』를 보면 의학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등장한다. 위의 인용문도 李裕元이 內醫院 都提調를 지내면서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直宿을 하면서 유학의 경전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었다는 사실이다. 李裕元은 위에 인용된 내용의 출처가 의서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 문장은 의서에 나오지 않고 道家계열의 서적인 『文子』의 「九守」편에 나온다. 『文子』는 道教에서 『通玄眞經』이라고 높여 불릴 정도로 道教에서는 중요한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性理學 사상이 지배적이던 朝鮮時代의 궁궐 안에서 道家계열의 서적을 읽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朝鮮 정부는 공식적으로 性理學을 존승하였고 性理學에서 道家사상은 이단적인 사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道家계열의 책을 읽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문장은 『東醫寶鑑』의 「胎孕之始」와 「身形藏府圖」의 문장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東醫寶鑑』의 해당 문장들은 孫思邈의 글, 『乾鑿度』, 『周易參同契』 등 道家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서적들을 출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醫官들이 개인 시간, 특히 당직을 하는 밤 시간에 여러 의서를 읽었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유학적인 사상과는 다른 종류의 서적도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道家적인 색채가 다분한 『東醫寶鑑』은 공식적인 시험을 볼 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醫官들의 개인적인 시간에 읽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III. 결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임상의학서로서 사용되고 있는 『醫學入門』은 『東醫寶鑑』과 더불어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의서이다. 하지만 『醫學入門』이 醫科 시험에 考講書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였다.

『醫學入門』의 도입은 그것이 저술된 1580년경과 『東醫寶鑑』이 완성된 光海2年(1610) 사이라고 할 수 있다. 仁祖26年(1648)에는 『醫學入門』의 판목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박훈평의 연구에 따르면 1636년까지 소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1636년 당시 조선판의 『醫學入門』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英祖22年(1746)에는 『醫學入門』을 외우는 습관을 지녔던 醫官 許坵(1649-1732)에 대한 기사가 존재한다. 英祖34年(1758) 醫官 李泰遠의 건의로 英祖가 『醫學入門』, 『醫學正傳』, 『東醫寶鑑』을 짚을 것을 명하였다. 正祖即位年(1776)에는 궁궐에 최소 4질의 『醫學入門』이 존재하였고 醫科 시험에서 『醫學入門』이 시험 교재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正祖2年(1778) 『惠局志』에서 『醫學入門』을 매 초 하루 30구절씩 시험 보았다는 언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惠局志』가 성립된 肅宗45年(1719)에서 正祖即位年(1776)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醫學入門』이 비공식적으로 시험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純祖31年(1831) 『醫學入門』이 背講 교재로 선정이 되었으며 高宗2年(1865)에는 『大典會通』에 공식적인 교재로 명기되었다.

『醫學入門』이 『東醫寶鑑』대신에 考講 교재로 선진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醫學入門』이 考講 교재로 선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醫學入門』은 저술의 목적 자체가 의학의 학습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 때문에 암기에 쉽도록 7연의 가결 형식으로 집필되었다. 반면에 『東醫寶鑑』은 저술의 목적이 의학의 학습 보다는 백성의 건강 증진에 더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東醫寶鑑』형식상으로 암송하기 쉬운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다. 둘째, 『醫學入門』은 儒敎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책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東醫寶鑑』은 道敎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東醫寶鑑』을 법전에 명시된 교재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醫官의 숙직시간에 道家 계열의 책도 읽은 것으로 문헌에서 확인되는 만큼 『東醫寶鑑』은 醫官의 개인 시간에 학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로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두 자료의 특성상 의학이 가장 주된 주제가 아니므로 『醫學入門』이 講書 과목으로 채택되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몇몇 관청지나 개인의 기록들을 통해 그 간극을 조금씩 메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더 많은 사료들이 발굴 및 발견되어서 『醫學入門』의 수송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2. 『朝鮮王朝實錄』
3. 許浚. 『東醫寶鑑』
4. 李梴. 『醫學入門』
5. 이유원. 『국역 임하필기 7』.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99.
6.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7.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
8.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사학회지. 2000;13(1):111-127.
9. 박훈평. 「조선 간행 『의학입문』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7;30(2):33-44.
10. 홍세용, 이만근,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5-137.
11. 김대기. 「明 後期 醫學者의 身體觀 -이천의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006;21:149-178.
12. 오준호. 「의학 사상의 유사성은 계량 분석 될 수 있는가 - 『동의보감』과 『의학입문』, 『경악전서』를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2):71-82.
13. 조학준. 「『醫學入門』 肝葉 관련 문장의 새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1;34(1):27-36.
14. 조학준. 「『醫學入門』 明堂仰伏圖의 기원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1):75-93.
15. 조학준. 「『醫學入門』 三焦 생리 특성의 유래」. 한국사학회지. 2015;28(2):23-36.
16. 조학준. 「『醫學入門·腰痛』의 문헌 근거 - 『東醫寶鑑·腰痛』과 비교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27(2):119-135.
17. 조학준. 「『醫學入門』 命門 形狀의 유래와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79-97.
18. 조학준. 「『傷寒辨類』의 編制와 內容에 대한 연구 -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比較」. 한국사학회. 2012;25(2):49-62.
19.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참고의서분석과 편제연구」. 한국사학회지. 1999;12(2):47-88.
20.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6;29(2):1-16.
21. 김효민. 「명청소설과 八股文」. 한국중국소설학회. 2004;20:129-155.
22. 김기현. 「성리학의 敬公부가 갖는 특수성에 관하여 - 현대적 연구의 서설로서-」. 도덕윤리과교육. 2012;0(37):227-246.